

거장의 예술 魂 느낀다

故 윤이상 탄생 90주년 기념 페스티벌 개최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작곡가 고(故) 윤이상 선생의 탄생 90주년을 기념하는 윤이상 페스티벌이 9월 16일부터 11월 10일까지 서울과 부산, 울산 등 국내를 비롯해 평양과 베를린에서 열린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윤 선생이 동백림 사건으로 투옥됐을 당시 유럽에서 구명운동에 앞장섰던 프란시스 트라비스(前 스위스 라디오 필 지휘자)를 비롯해 독일의 현대음악 거장인 니콜라우스 후베(前 독일 예센을대 교수), 베를린 음대에서 윤 선생에게 작곡을 배웠던 일본의 대표적 현대음악가 이사오 마츠시다(동경 예술대 교수) 등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국제 윤이상 음악상 심사위원 자격으로 참가한다.

페스티벌은 윤 선생의 출생일인 9월 16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프란시스 트라비스와 정지용이 지휘하는 윤 선생의 대표작 '헬로와 관련 악을 위한 협주곡' 등으로 막을 연다. 이어 18일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 홀에서는 윤이상 음악을 전문적으로 연주할 서울 윤이상 앙상블의 창단 연주회가 열리고, 19일 통영국제음악제 앙상블 연주회(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20일 칸타타 '나의 땅, 나의 민족이여'는 87년 평양에서 초연된 적이 있으나, 당시엔 윤 선생의 의도보다 규모를 축소해 연주했다. 이번 한국 초연은 합창단, 관현악단을 포함해 240명에 이르는 대규모 인원이 참가한다. 이 곡은 군사정권에 투옥돼 옥고를 치른 시인들의 시집 48권을 구



한국, 평양, 베를린서 공연 세계적 음악가들 방한 예정 11월 3일 봉은사에서 추모제

단 연주회(세종채임버홀)가 이어지고, 11월 2일 윤이상 선생의 서거일에는 고양 아람누리 아람음악당에서 폐막 공연이 개최된다. 특히 한국에서 초연되는 칸타타 '나의 땅, 나의 민족이여'는 87년 평양에서 초연된 적이 있으나, 당시엔 윤 선생의 의도보다 규모를 축소해 연주했다. 이번 한국 초연은 합창단, 관현악단을 포함해 240명에 이르는 대규모 인원이 참가한다.

이 곡은 군사정권에 투옥돼 옥고를 치른 시인들의 시집 48권을 구

해서 읽은 후, 시를 뽑아내어 그 시에 곡을 붙여 독창과 합창이 함께 들어가는 칸타타 형식으로 구성한 것이다. 이번 초연에는 이 곡의 원천인 됐던 재야 시인인 고은, 백기완씨 등도 초청된다.

이외에도 11월 3일 삼성동 봉은사에서는 윤이상 서거 12주기 추모법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또한 북한과 독일에서도 페스티벌을 이어받아 10월 20-22일 평양 윤이상음악당에서 제26차 윤이상음악회가 개최되고, 베를린에서는 11월 8-10일 베를린 국립음대 콘서트홀에서 베를린 윤이상 앙상블의 밤과 심포지엄 등으로 대미를 장식한다.

이번 행사에서 눈여겨 볼 점은 올해부터 재능있는 젊은 음악인의 지원을 통해 윤이상의 음악적 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제1회 국제 윤이상 음악상' 공모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격년으로 개최될 국제 윤이상 음악공모전은 올해 90여명의 젊은 작곡가가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최종 결선에 5명이 올라 페스티벌 기간 중 결선 심사 및 시상식을 연다.

이번 페스티벌에서 가장 큰 의미로 대두될 것은 윤이상 선생의 부인 이수자(80) 여사가 9월 10일 오후 3시 인천공항을 통해 40년 만에 고국 땅을 밟는다는 것이다. (02)723-0634 김주일 기자

삼룡사 우승컵 안고 '화이팅'

제34회 상월조사배 배구대회 1만여 명 참석

천태종이 개최한 제34회 상월조사배 배구대회에서 서울 삼룡사가 우승을 차지했다.

천태종(총무원장 정산)은 9월 2일 충북 단양공설운동장에서 도용 종정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1만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제34회 상월조사배 배구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종단 사찰의 입상식, 교무부장 유정 스님의 개회선언, 오순학 중앙청년회장과의 대화, 총무원장 정산 스님의 법어, 김동성 단양군수와 신

장용 한국중·고등학교 배구연맹 회장의 축사가 이어진 뒤 배구(9인조 A, B, 족구, 줄다리기, 단체줄넘기, 장애물릴레이 등으로 진행됐다.

배구 A리그에서는 서울 삼룡사가 장원 원흥사를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 B리그에서는 영춘회가 동해 만리사를 제치고 우승했다. 3위는 서울 관문사와 부산 삼광사가 차지했다.

또 족구는 밀양 삼양사가 줄다리기는 춘천 삼운사가 각각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단양=김주일 기자



"불교대 교수 장학금 유용"

동국대 한진수 부총장 기자회견서 밝혀

"진상조사 결과 불교대 조용길 교수가 불교장학회 장학금을 유용한 것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동국대 한진수 부총장(진상조사위원장)은 9월 4일 부총장실에서 기자회견담화를 열고 최근 문제가 불거진 (재)동국대 불교장학회 장학금 유용 문제에 대해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 부총장은 "이 문제는 지난 8월 17일 동국대 불교대 학생회 회장

해공 스님이 오영교 총장에게 불교장학회에 비리 의혹이 있다며 진상조사를 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며 "총장 지시로 8월 20일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됐으며, 세 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 3년 간 750여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부총장은 "불교장학회에는 이사 4명과 감사 2명이 있는데 이중 일부 이사와 감사는 자신이 직책을 맡고 있는 지조차 몰랐다고 진술했다"며 "지난 1년 동안 이사회 회차와 열리지 않았으며 단 한 차례의 감사보고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냈다"고 말했다.

(재)동국대학교 불교장학회는 1968년 9월 17일 백성우 당시 동국대학교 총장이 서울 중부교육청에 설립허가를 받은 공익장학재단이다. 한편 동국대 불교대학 학생회는 이와 관련, 9월 3일 성명을 발표하고 조용길 교수의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주일 기자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100% 천연

- ❖ 산야초 오곡조청 1.2Kg - 48,000원
- ❖ 산사 참 울 조청 1.2Kg - 현 시세
- ❖ 산사 약도라지 조청 1.2Kg - 현 시세

불자님들을 위한 정성 산사조청원
주문처 054-373-3166
입금계좌 : 농협 727077-52-056761(예금주:한승희)



9월 3일 열린 전법회관 기공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오른쪽에서 세 번째)과 김익정 조계종 중앙신도회장(맨 오른쪽) 등이 시삽을 하고 있다.

조계종 전법회관 기공...2008년 6월 완공

조계종 중앙신도회관 전법회관의 기공식이 9월 3일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회관 부지에서 개최됐다. 전법회관은 대지 560㎡(약 169평)에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로 2008년 6월 완공 예정이다. 이곳에는 조계종 신도단체들과 사회복지재단 등이 입주하게 된다. 시공은 성일건설주식회사가 맡았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앞으로 신도단체들이 이곳에 터를 잡고 신행과 포교에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며 "공사가 안전하게 완공되기를 기원한다"고 축사했다. 김익정 조

계종 중앙신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부대중의 정성과 기원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승할 전법회관이 지어지게 됐다"며 "앞으로 더욱 신도회 역할에 충실하고 불자회 발전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전법회관 건립 추진위원회 현문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교육원장 철화 스님 등 종단 임원 스님들과 윤원호·신명 의원, 백장기 조계종 중앙신도회 명예회장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주일 기자

"외압 없었다"

장운 스님 대변인 발표문 배포 9월 6일 이사 사퇴서 제출

"청와대 불자회 변양군 정책실장을 만나 조계종 중앙종회 법제분과위원장 자격으로 각 사찰에서 여러 일을 겪고 있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외압은 없었다."

신정아 학력위조를 처음으로 제기한 장운 스님이 최근 변양군 청와대 정책실장의 외압 의혹설에 대해 공식적으로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또한 장운 스님은 동국대 이사로서 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9월 6일자로 동국대에 이사 사퇴서를 제출했다. 장운 스님의 대리인 자격으로 나

선 이종훈 변호사는 9월 6일 서울 마포경찰서 기자회견에서 회견을 갖고 이를 골자한 장운 스님의 발표문을 배포했다.

이 발표문에서 장운 스님은 "가짜 학력 의혹 은폐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동국대 재단이사들이나 학교관계자들은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운 스님은 "변양군 청와대 정책실장과 만난 것은 사실이나 일상적인 이야기 수준이었다"면서 "과태말라에 있었던 변 실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은 없다"고 변 실장 외압설을 부인했다. 김주일 기자

친공청소·물걸레청소·구석청소 마미로봇이 한방에 다 한다

힘들지 않고 청소하는 로봇청소기-마미로봇

대리점 문의 제품 구입 1588-7402 인터넷 검색창에 마미로봇

Mamirobot (주)경민메카트로닉스 www.mamirobot.co.kr

I Love Buddha / 건강하세요

용정운(www.zentoon.com)



대한불교조계종 제31대 총무원장

仁谷堂 法長大宗師 涅槃 2週忌 追慕 茶禮

인곡당 법장대종사의 열반 2주기를 맞이하여 아래와 같이 추모다례를 봉행합니다.



일시 : 2007년 9월18일(음력 8월 8일) 화요일 10:00

장소 : 덕숭총림 수덕사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 본사 수덕사 주지 용산
인곡당 법장 대종사 문도 일동

충남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20 ☎ 041)337-6565 www.sudeoksa.com